

I. 經濟 · 金融 環境變化

1. 巨視經濟展望

가. 國內經濟

(1) 經濟成長

- 1995년 하반기 이후 下降局面을 지속해 온 국내경기는 1997년 4/4분기 이후 회복되어 1998년도 상반기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며 하반기 이후에는 民間消費와 投資가 고르게 성장을 뒷받침하여 6.6~6.9%의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이러한 성장세는 과거의 경기회복 초년도의 경제성장율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이는 우리경제가 安定的 低成長 구조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함.
 - 현재의 하강국면이 景氣循環的인 요인의에도 産業競爭力 弱化和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으므로 1998년에는 금년에 이어 구조조정 노력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.
- 民間消費支出은 경기후행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1997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 -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雇傭不安 등이 병행하여 지속됨으로써 본격적인 호황국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.

<표 1-1> 1997~98年度 巨視經濟 展望

(단위: %)

구 분	KDI		KIET	금 융 연구 원	삼성	LG	현대
	1997	1998					
GDP 성장률	6.4	6.7	6.9	7.0	6.8	6.9	6.6~6.9
최종소비지출	4.7	5.0	4.9	5.6	-	-	5.8~6.1
(민간소비지출)	4.8	5.5	5.0	5.8	5.2	5.9	5.8~6.1
총고정자본형성	-1.3	4.0	0.3	7.3	4.8	-	5.2~5.6
(건설투자)	1.2	5.5	0.4	6.3	-	6.5	5.9~6.3
(설비투자)	-4.4	2.0	0.2	7.9	-	5.7	4.5~4.9
수출(억\$)	1,397	1,580	1,579	1,575	1,606	1,575	1,469~1,483
수입(억\$)	1,443	1,559	1,704	1,632	1,641	1,638	1,579~1,594
경상수지(억\$)	-134	-79	-150	-96	-110	-88	-126~-134
소비자물가상승률	4.4	4.5	4.5	4.1	4.9	4.3	4.5~4.7
생산자물가상승률	3.3	3.1	3.2	-	-	2.9	-
시장금리	-	-	12.0	11.4	11.6*	11.7*	상반기 11.0~11.5* 하반기 10.7~11.2*
원 / 달러 환율	-	-	-	887	890*	880*	상반기 910~920* 하반기 900~910*
실업률	-	-	-	2.7	3.2	2.6	2.6~2.7

註: 1) KDI를 제외한 타연구기관의 수치는 1998년 전망치임.

2) 시장금리는 3년만기 은행보통 회사채 수익률 기준임.

3) *는 기말기준임.

資料: LG경제연구원, 『경제전망』, Vol. 30, 1997.9.

산업연구원, 『97/98 국내경제전망』, 1997.9.

삼성경제연구소, 『삼성경제』, 1997.10.

한국개발연구원, 『KDI경제전망』, 1997.10.

한국금융연구원, 『1998년도 금융경제전망·금융기관 위험관리의 신기법』, 1997.10.

현대경제사회연구원, 『1998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』, 1997.10.

○ 總固定資本投資는 올해 마이너스(-) 증가율을 보인 설비투자가 차츰 회복되어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다.

- 건설투자도 非住居用 建物建設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는

4.0% 내외의 성장율을 보일 전망이다.

- 1997년 6월 이후부터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8년에도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하여 수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- 특히 主力輸出商品에 대한 시장여건의 개선과 세계경제의 높은 성장도 수출회복의 한 요인이 될 것임.
 - 이에 비해 수입은 기업들의 經營內實化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998년의 經常收支赤字는 1997년의 추정치보다 다소 개선된 80~1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.

(2) 失業率

-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雇傭調整과 기업의 減量經營과 같은 요인으로 1998년의 고용사정도 뚜렷하게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임.
 -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따른 雇傭創出效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과 高齡者層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되어 노동시장 내에서 臨時職勤勞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.
 - 다른 한편으로는 勞動力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되는 등 구조적인 失業壓力과 기존 취업자의 雇傭不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업율은 올해와 비슷한 2.6~2.8%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.

(3) 物價

- 1998년의 消費者物價는 대규모의 韓銀特融에 의한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에 대한 수요측 압력이 낮고 통화유통속도의 저하, 재고조정, 수입개방화, 유통구조의 개선 등에 힘입어 4.5% 내외의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.
 - 다만, 지하철 요금, 버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급격히 현실화되거나 환율상승에 의해 생산비용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될 수 있음.
- 1998년의 生産者物價는 원화가치가 완만한 切上勢를 보일 것이며, 油價의 안정기조와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금년에 인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.0% 내외 수준의 상승율을 기록할 전망이다.

(4) 金利 및 換率

- 1998년 중 市中金利는 전반적으로 下向安定趨勢를 보일 전망인데 이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자금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며 債券市場의 開放擴大로 채권 매수세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임.
 - 1997년과 같이 대기업 부도로 인한 金融市場不安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급등세를 지속할 우려도 있음.
- 1998년의 對美달러 換率은 국제통화시스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국제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로 원화의 완만한 切下基調가 유지될 가능성

이 높음.

- 다만 무역수지 및 종합수지의 개선으로 外貨流入이 증가하고, 경기회복으로 해외자본의 유입도 지속될 경우 다시 절상기조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음.

나. 國際經濟

(1) 經濟成長

- 世界經濟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와 동남아 경제의 위축이 예상되지만 일본, EU의 꾸준한 성장세와 러시아의 빠른 回復으로 1998년에도 3.8% 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-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호조를 지속할 것이며 日本과 中南美 經濟는 완만한 회복세를, 러시아 및 서유럽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동남아 경제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임.
- 美國經濟의 성장세는 高賃金·高物價 壓迫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은행의 고금리 정책이 예상되므로 1997년보다 鈍化될 것으로 예상됨.
 - 그러나 신중한 巨視經濟政策과 민간부문의 역동성, 노동시장의 탄력성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활황세가 급작스럽게 불황으로 反轉되기보다는 현재의 기조를 어느 정도 이어갈 전망이다.

<표 1-2>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展望

(GDP기준, %)

구 분	1997			1998		
	WEFA	IMF	DRI	WEFA	IMF	DRI
전 세계	3.7	4.2	-	3.8	4.3	-
선진국	2.7	-	-	2.6	-	-
미국	3.5	3.7	3.2	2.3	2.6	1.9
일본	2.1	1.1	1.4	3.2	2.1	2.6
독일	2.2	2.3	2.2	2.2	2.8	2.6
영국	3.2	3.3	3.0	2.4	2.6	2.5
동남아시아	6.4	-	6.4	6.7	6.0	6.7
중국	9.8	-	9.7	9.2	-	9.6
중남미	4.2	-	-	4.2	-	-
시장경제전환국	2.9	-	-	4.0	-	-

資料: 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7.8.

IMF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6.8.

DRI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7.2nd quarter.

○ 日本經濟는 1995년 초부터 엔貨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말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진입하여 구조조정의 결실이 나타나는 1998년에는 3%대의 성장이 가능하리라 예측됨.

- 특히 政策金利도 경기회복기조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, 환율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여 경기가 완전한 호조국면에 접어들 것임.

○ 유럽경제는 1995~96년 동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1998년에는 海外部門의 擴大와 民間部門의 주도로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

입할 것으로 전망됨.

- 특히 通貨弱勢에 힘입은 수출호조와 설비투자의 증대, 민간소비의 증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임.
- 독일과 프랑스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며 영국은 민간소비의 증가로 경기호조세가 이어질 것임.
- 중국경제는 홍콩반환, 적극적인 海外直接投資 유치 등으로 1997년의 고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임.
- 1996년 이후 급격한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남아 경제는 내년에도 外換危機의 영향과 內需萎縮 등으로 고도성장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나 하반기부터 통화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임.
- 러시아, 동구 국가 등 體制轉換國들은 기본적인 시장경제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수립, 不實資産 처리, 국유기업의 재조정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.

(2) 國際金利

- 世界經濟의 上昇勢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美國金利는 경기호조와 미국연방준비이사회(FRB)의 금리인상 가능성으

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나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임.

-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므로 10년만기 국채의 장기금리는 6.5~6.7%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금리인 유러달러금리(3개월물)는 6.0% 수준으로 예상됨.
- 일본은 內需增加와 美日間 貿易摩擦 등 금리인상 요인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민간투자와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어 물가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 - 10년만기 장기금리는 1.9%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며 유러엔도 1.2%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.
- 독일금리 역시 독일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르크貨 弱勢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상승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.

(3) 國際換率

- 1998년 美달러貨에 대한 엔화 가치는 상반기에는 엔화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는 일본경제의 경기회복과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약간의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중으로는 소폭의 切上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.
- 마르크/달러는 1999년에 출범할 유러貨(유럽단일통화)의 강세를 위한 마르크화 강세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달러당 1.69 마르크 수

준을 보일 전망이다.

<표 1 - 3> 國際金利 및 換率 展望

구 분		1997			1998		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금 리 ¹⁾	미 국	5.8	6.1	6.1	6.1	6.0	6.0
	일 본	0.7	0.7	0.7	1.0	1.2	1.2
	독 일	3.1	3.3	3.3	3.5	3.8	3.8
국제환율 ²⁾	엔/달러	115	118	118	114	112	112
	마르크/달러	-	-	1.71	-	-	1.69

註: 1) 금리는 3개월 만기 유로금리로 기말기준임.

2) 환율은 기말기준임.

資料: LG경제연구원, 『경제전망』, Vol. 30, 1997.9.

WEFA, *World Economic Outlook*, 1997.8.

2. 金融經濟環境

가. 金融市場 開放

○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自由化規約 및 經常貿易外去來 자유화규약의 실행으로 金融開放化가 계속 진전되어 海外資本 流入,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임.

- 우리 금융산업의 對外開放이 1998년 말경에 사실상 완료될 것이며 2001년 말에는 자본거래의 자유화도 대부분 完了될 전망임.

○ 株式市場과 債券市場 등 자본시장에 대한 추가개방의 확대에 따라 海外資金의 流入이 증대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금리인하 등이 기대되는 반면, 통화관리상의 곤란, 物價不安 등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가능성도 있음.

- 外國人의 주식투자한도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말에는 총액투자한도를 폐지하고 1인당 투자한도를 10%까지 인상할 예정임.

- 은행업의 경우 外國銀行 국내지점 설치의 자유화에 이어 1998년 12월에는 외국은행의 국내 現地法人 설립을 허용할 예정임.

- 증권회사의 경우는 금년 4월의 증권회사 설립에 따른 경제적 수요심사제도(ENT) 폐지에 이어 1998년 12월에는 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사의 持分參與比率 制限(50%)을 폐지할 예정임.

- 保險業의 경우는 손해사정업, 보험계리업, 보험중개인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고 크로스보더(cross-border)의 확대도 이루어질 예정임.

- 投信業의 경우는 1998년 12월에 현지법인의 신설이 허용될 예정임.

나. 金融産業 制度改編

○ 금융의 統合化·汎世界化 등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내년에도 금융개혁 노력이 지속될 것임.

-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進入 및 退出의 활성화, 業務領域의 확대, 구조 개선 등 시장참여자의 力量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, 금융기반을 구축시키기 위한 정책과 市場監視機能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모색될 것임.
- 금년 4월의 보험회사, 증권회사 등에 대한 신규진입 기준이 마련된 데 이어 1998년 중에 일정 기준 하에 은행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新規進入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.
 - 投信社의 경우는 투자자문사가 투자신탁회사로 전환이 완료되는 1998년 6월 이후에 자본금 요건을 인하할 예정이며, 先物去來會社의 경우도 선물거래소가 개설되는 1998년 말 이후에 자본금 요건이 인하될 예정임.
 - 증권업과 투신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收益性向上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手數料 自律化에 따른 수수료 인하 경쟁도 치열해질 것임.
- 「與信專門金融業法」이 199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카드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, 신규진출의 확대로 공격적인 영업방식이 예상됨.
 - 기존 카드회사는 리스와 할부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백화점계나 대기업 카드사들의 신규진입과 綜合與信專門金融業體의 출현이 예상됨.
-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차원에서 1998년 중에는 純粹金融持株會社의 설립이 허용될 예정임.

- 이로써 금융기관 경영조직의 효율화가 도모되고, 인수·합병이 촉진될 전망이다.
- 보통예금, 당좌예금, 별단예금 등 要求佛預金에 대한 금리자유화는 1998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, 요구불예금이 없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금리 관련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.
- 이러한 금리자유화의 확대로 이용자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및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同種 및 異種 金融機關間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금융감독제도의 개선과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금년에 추진되었던 「金融監督機構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한국은행법」, 「은행법」, 「증권거래법」 등 금융제도 관련 법률의 制·改正 작업의 후속조치들도 추진될 예정이다.